

연재물

편집장 레터

어떤 日人들

일본 아사히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주필의 한국 생활 기사를 이번주 박영철 차장이 썼습니다. 와카미야씨는 지난 1월 정년퇴직한 뒤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서대 석좌교수, 서울에서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신분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진보지로, 판매부수에서는 2위(위키피디아 영어 사이트 기준)입니다. 존경받는 언론입니다.



일본의 엘리트 지식인이 왜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간의 파고가 높은 이즈음에 말입니다. 그는 지한파이고, 한국에 많은 친구가 있다고 박 차장은 기사에 썼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제안해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편안한 은퇴 후 삶은 낡두고, 이웃나라의 단칸방 리빙텔 생활을 선택한 일본 최고의 지성이라니,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주간조선은 한·일관계를 와카미야씨에게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놀라는 건, 한국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 우파만 보면 그들이 도무지 제정신인가, 21세기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와카미야씨와 같은 일본인을 보면, 일본 사회의 다양성이랄까, 그런 것에 화들짝 정신이 듭니다.

일본인 중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그런 소수 일본인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언론은 ‘봐라, 일본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의 대세를 거스르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런 소수 일본인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서 힘을 못 쓰겠지요. 얼마 전 주간조선에 ‘일본 우파 언론인이 본 일본 우파의 본심’이라는 글을 쓴 구로다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이 와카미야씨를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아사히신문이란 곳은, 정년퇴직한 주필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한심한 언론’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모두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견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잘하고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나의 거울로 삼게 됩니다. 반면 교사랄까요. 우리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님 고맙습니다.

